

수능 D-100 / 학습 전략은

실전 문제풀이로 감각 익혀야

성적 감안 수시·정시 목표 정해 공부하도록

2007년 대입 수능 D-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마무리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전문가들은 “이제까지의 모의고사 성적 등에 실망하거나 연연해 하지 말고 남은 100일 동안에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실전 대비 전략 세워야=이젠 개념 정리 등은 이미 끝내고 실전 문제 풀이에 들어가 감각을 익힐 때다. 또 수능을 30일 정도 남기고는 단원별 핵심 정리와 오답 체크 등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광주 송일고 박성근(43) 진학부장은 “실전 문제 풀이를 할 때도 그냥 정답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통해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토록 하는 것이 좋다”며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능 공부에서는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기출 문제와 모의 평가 문제를 통해 출제경향과 난이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만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학기 수시 준비도 전략=대입에서는 공부 외에 지원 전략도 중요

하게 작용한다.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정원의 약 43%를 선발한다. 수시모집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다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수시 지원 여부에 따라 수능 공부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학생부 성적보다 월등하게 좋다면 수시 지원을 포기하고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실질 반영이 낮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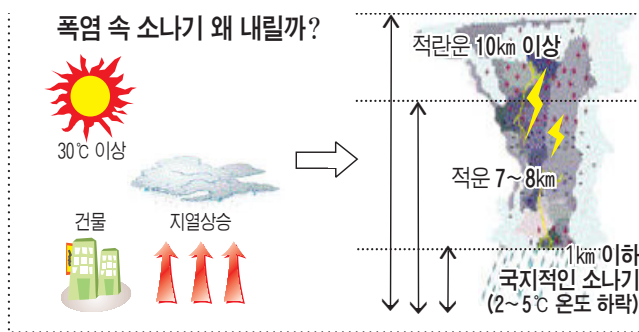
반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학생부 성적에 비해 낮을 경우 2학기 수시를 준비해볼 만하다. 이런 경우 학생부 성적을 분석,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 등을 챙겨야 한다. 2학기 수시에서도 대학별 고사로 논술과 심층면접 및 적성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재학생 중에서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학생부 성적이 특별히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2학기 수시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정시 모집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합격 위주의 지원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없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폭염 속 잦은 소나기 효과와 원인

연일 뜨겁게 쏟아지는 햇볕에 지표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새벽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熱帶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가 했다니 광주·전남 지역은 연 3일 천둥·번개와 함께 갑작스런 소나기도 쏟아졌다.



'자연 냉각수' 순식간에 2~5도 '뚝'

◇소나기가 '고마워'=폭염 속에 시원한 소나기가 지난 4~6일 내렸다.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진 것은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로 지면이 가열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성 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적란운(積亂雲)은 지상 1km 이하부터 수직으로 10km 이상 높이까지 형성된다. 비만 뿌리는 적운(積雲)은 7~8km다. 적란운 등은 수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automatic weather system)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나기는 짧은 시간에 2~5도 가량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생 중에서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학생부 성적이 특별히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2학기 수시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정시 모집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합격 위주의 지원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없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좁은 지역에 한 시간 동안

순간적인 폭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주변 온도가 2~5도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고 기록 깨질까?=지난 3일 광주의 낮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4.2도까지 올랐다. 하지만 광주의 역대 최고기록에는 한참 떨어진다. 지난 1994년 7월19일, 광주는 체온보다 높은 38.5도까지 치솟았다. 그 뒤 3일 뒤인 7월22일엔 38도로 두 번째로 높았다.

기상관측 이래 역대 낮 최고기온은 1942년 8월1일 대구에서 기록된 40.0도이다. 다음은 ▲추풍령 39.8도 (1939년 7월21일) ▲대구 39.7도 (1942년 7월28일) ▲

대구 39.6도 (1942년 7월13일) ▲대구 39.6도 (1939년 7월21일) 등의 순서다.

2위를 제외한 1~5위는 모두 대구가 차지했다.

다. 기상청 측은 “대구와 북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핀'(산을 넘어 불어내리는 돌풍적인 건조한 바람)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온도가 높고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올해 최고기록이 깨질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이번 주에는 평년과 비슷한 31~32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상청 측은 그러나 “온도가 33도로 예상된다 해도 갑자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기록 경신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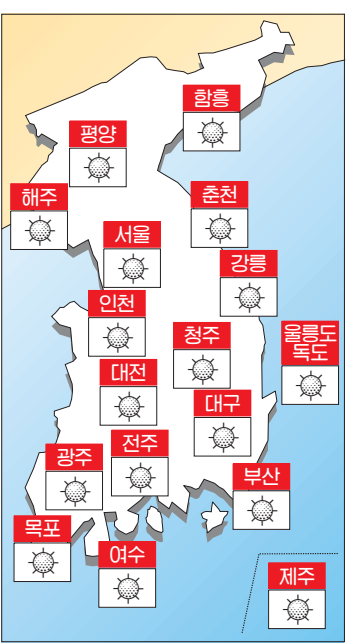
작은 우산 넣고 다니세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았으나 한 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었다.

8월 7일

(음 7월 14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소나기	23~32℃
대전	구름조금, 소나기	24~32℃
대구	구름조금, 소나기	24~32℃
부산	구름조금, 소나기	23~34℃
서울	구름조금, 소나기	23~33℃
인천	구름조금, 소나기	23~33℃
전주	구름조금, 소나기	23~34℃
목포	구름조금, 소나기	23~33℃
제주	구름조금, 소나기	23~33℃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0:21 썰물 < 06:08
 여수 밀물 < 07:12 썰물 < 13:14
 ▲해돋이 05:46 ▲해질 19:30 ▲달뜨기 18:09 ▲달짐 02:3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날씨						
최저/최고	23/32	24/31	23/30	24/32	24/32	24/32

생활안내

교통안내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청 1588-0060 방문상담 광주전남지방청 1588-9000 소복지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M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고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센터 (02)118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학생상담센터 363-0155 광주 여성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1391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국번없이 1389
------	--	----	---

'고교 3년차' '붙어 500' 등 '패러디 열' 인기

■ 'D-100' 마케팅 특수

2007년 수능을 앞두고 'D-100'(8월) 마케팅이 특수를 이루고 있다. 시내 문구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교 3년차(茶)'는 녹차 제품을 넣어 두는 용기처럼 동그란 형태의 종이 봉투에 엽을 포장해 놓은 것으로 '3년차' 우러낸 실력을 동원해 중후한 맛을 보여준다'는 의미, 비타린 음료 '비타 500'을 패러디한 엽인 '붙어 500'도 학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일기장인 'D-100 합격 플래너'는 수능 날짜에 맞춰 100일을 3일 단위로 나누고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 등을 수록했다.

GS이숍(www.gseshop.co.kr)은 아침식사를 거르기 쉬운 수험생들을 위해 생식·비타민·영양제·즉석 죽 등을 5~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버스노조 임·단협

오늘 조정신청 내기로

'광주 버스노동조합'(위원장 우원호)은 7일 광주시 북구 유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층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위원회에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상'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또 이날 사업장별 찬·반 투표 등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 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 일수 축소 ▲기보급 10.1%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 측과 네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린 6일 오후 광주 시내 금남로 풍경. 광주 시내 6곳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의 측정 결과, 반짝 내린 소나기는 주변 온도를 2~5도 떨어뜨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애완견 키우는 사람 3명중 1명 보신탕 먹는다

'보신탕 문화' 85% 찬성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3명 중 1명꼴로 보신탕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KBS 제1라디오 '김병희 지승현의 시사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보신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의 35.6%가 '요즘 보신탕을 먹는다'고 답해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37.1%)과 거의 비슷했다.

오히려 전에 애완견을 키워 본 사람(42.4%)이 보신탕을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돼 애완견

사육 여부는 보신탕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는 보신탕을 안 먹는 사람(61.5%)이 먹는 사람(38.5%)보다 더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56%)이 여성(22%)보다 보신탕을 선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보신탕을 먹는 사람이 많았다. 보신탕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는 찬성(85.1%)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개인음식 취향'(68.3%), '우리 문화의 일부'(16.8%) 등이 가장 많았고 반대 이유는 '종지 없는 풍속'(6.8%), '남에게 혐오감을 준다'(2.5%) 등이 각각 꼽혔다. /연합뉴스

어린이치아관리는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어린이들의 구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치아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초입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십시오.

1.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길러주세요.
2.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하루 두 번,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십시오.
3.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칫솔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칫솔은 3~4주마다 교체하십시오.
4. 올바른 양치 방법과 양치 횟수를 알려주세요. 양치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어주세요.
5. 올바른 양치 방법과 양치 횟수를 알려주세요. 양치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어주세요.
6. 양치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어주세요. 양치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어주세요.
7. 양치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어주세요. 양치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어주세요.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는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구강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